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美서 폐 손상 의심 33명 사망”

국내도 의심 사례...유해성 검증 니코틴액 수입 통관 대폭 강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폐손상 의심사례가 보고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신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사례는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 기타 증상이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 2일 1건의 의심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하루 5개비~1갑 정도의 일반담배를 피우다 2~3개월 전부터 췌장, 림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30세 남성으로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 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환자는 현재 증상이 호전돼 지난 4일 퇴원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을 신속히 조사한 뒤 안전관리와 니코틴액 수입 통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의 조치로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보고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향을 내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미국 폐손상 환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온 대마유래 성분인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유해성분에 대해선 제조·수입업자에게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 따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직구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에 대해선 간이통관에서 배제하고,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와도 시행한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활용품 모아 이웃 돕기

23일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동구새마을회원들이 관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다. 이날 수거한 헌옷, 가방, 고철, 파지 등 30여t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을 나들이철 도시락 식중독 주의 하세요

식약처 예방 요령 발표

가을 나들이철 도시락을 준비할 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높아 조리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23일 식중독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김밥 등 도시락을 준비할 때 조리 전·후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과일·채소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구야 한다. 유탄 등은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한다.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김밥을 만들면 야채에서 나온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재료를 식힌 뒤 만드는데 좋다.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용기에 담아야 안전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햇빛이 닿는 곳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버리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평소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모든 유치원 ‘처음학교로’ 원아 모집

전남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이 공·사립 구분 없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이뤄진다.

전남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해 오는 11월 1일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남지역 505개(공립 402개·사립 103개) 공·사립유치원 전체가 참여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에 원하는 유아의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원서접수, 선발, 등록을 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에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온라인 추천

으로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다.

2020학년도 자녀의 유치원 입학에 원하는 학부모는 당일 ‘처음학교로’에 접속해 학부모 회원가입 및 자녀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입학에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모집요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입생은 3개 유치원, 재원생은 2개 유치원까지 접수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지원·선발이 가능하다. 선발결과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이 각각 다음달 12일, 26일에 발표된다.

정혜자 도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올해 세 번째 시행되는 ‘처음학교로’는 공정한 선발 및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전체 공·사립유치원이 참여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6 달뜨기 01:48
해질 17:47 달지기 15:40

상강(霜降)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 곳에 따라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14/23	보성	흐림	12/23
목포	흐림	15/22	순천	흐림	15/23
여수	흐리고한때비	16/20	영광	흐림	13/23
나주	흐림	12/24	진도	흐림	14/22
완도	흐림	15/23	전주	흐림	14/22
구례	흐림	12/23	군산	흐림	14/23
강진	흐림	14/24	남원	흐림	13/22
해남	흐림	12/23	흑산도	흐림	15/21
장성	흐림	13/2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3.0	북동~동	1.0~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보통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좋음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59	10:28
16:05	23:14	
여수	11:51	05:59
	--:--	18:24

◇ 주간 날씨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	☀	☀	☁	☀	☀	☁
13/22	12/17	8/18	8/19	10/19	9/20	10/20

지난해 광주·전남 교통안전 대폭 개선

안전지수 전국서 가장 큰폭 상승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광주·전남의 교통안전 수준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3일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비교·평가한 '2018년 교통사고 통계 기반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다. 교통안전지수는 지자체별 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인구와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지수와 등급을 매긴 것이다.

교통안전지수 등락으로 따진 개선 폭

은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5.65%로 가장 컸다. 광주의 교통안전지수는 2017년 74.47점(C등급)에서 지난해 78.68점(C등급)으로 상승했다. 도 단위에서는 전남의 개선율이 1.24%로 가장 높았다.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광주시 동구의 개선율이 8.17%로 전년 대비 교통안전 개선이 가장 뚜렷했다.

기초단체 교통안전지수는 전북장수군이 85.15점으로 227개 조사대상 중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북구,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 개소

광주시 북구가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균등한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북구는 "24일 오후 2시 북구 보건소 3층에서 구강보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북구는 구강건강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등)이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체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구강보건센터를 조성했다.

구강보건센터는 사무실, 구강보건 교육실, 진료실 등을 갖추고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북구치과의사회 등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설 장애인 1차 치과 진료', '저소득 아동치과치료' 등 맞춤형 구강진료 사업을 펼쳐나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특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